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개통

- 양회 수송능력 증대 및 선로 도시외곽 이전으로 지역개발 촉진 -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태백선 제천~쌍용간(14.3km) 복선전철사업을 완공하고 11월 14일 개통했다.

2004년 11월에 착공하여 400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제천~입석리간

14.3km를 복선전철화함으로써 47회에 불과했던 선로용량이 127회로 크게 늘어나고 운행시간도 15분에서 7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또 제천시를 감싸고 통과하던 노선이 도시외곽으로 옮겨져 건물폭 12개소가 완전히 철거되어 안전한 통행환경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말 개통을 목표로 1조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 중앙선 원주~제천간(44.1km) 복선전철사업이 완공되면 시속 250km급 고속화열차가 운행되어 청량리~제천간 50분대에 이동하게 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X광명역 광명중합터미널 개장

- KTX와 시외·공항버스 환승 편의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관)는 KTX광명역 북쪽 철도시설부지(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63~163번지 일대)에 시외버스와 공항버스를 환승할 수 있는 광명중합터미널을 건립하여 11월 12일 개장했다.

광명중합터미널은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16.7% : 83.3% 지분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광명역복합터미널(주)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6527㎡ 규모로 작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10월 준공 후, 티켓발매시스템 시운전 등을 거쳐 개장했다.

개장 행사는 규모를 최소화해 절감한 비용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쌀을 구입하여 광명시에 전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겼다.

광명역세권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한 광명중합터미널은 강원권(속초, 강릉), 경기권(안산, 화성, 동탄, 발안) 충청·전북권(청주, 당진, 서산, 태안, 전주)에 시외버스를 일일 20회 운행하는 한편, 인천공항·김포공항을 연계하는 공항버스를 일일 63회 운행하며 2017년까지 고속버스 10개 노선, 시외버스 10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유치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중심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본부는 광명중합터미널 개장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고속철도, 시외버스, 공항버스를 한 곳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전 구간 공사 본격 추진

- 미척공 개소 일광~덕하구간 11월 22일 기공식 -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11월 22일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용기문화공원에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65.7km) 복선전철 건설구간 중 미척공단 일광~덕하(27.7km)구간 기공식을 개최하고 철도건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동해남부선 철도건설은 부산과 울산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 2조5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7년 말 개통 예정이다.

이번 복선전철화 공사로 노선을 최대한 직선화(72.1~65.7km, △6.4km)하고, 철도와 도로가 교차되는 평면 건물폭 53개소를 입체화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조성 및 도시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2017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무궁화호로 63분이 걸리던 열차운행 시간이 32분(△31분)으로 단축되고, 선로 용량도 30회에서 134회로 크게 늘어나 부산과 울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4개 공구 노반 건설사 최종 낙찰

- 11월 중 계약체결 및 착공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훈)은 9월 10일 입찰 공고한 '부산~울산 복선전철 노반 건설공사' 4개 공구의 낙찰업체(대표사 기준)로 동부건설(주), (주)한라, 진흥기업(주), (주)포스코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4개 공구 입찰은 공단이 지난 7월 담합 등 불공정 입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공중기준금액 산정 시 공중설계금액에서 공중예정금액으로 변경)한 최저가 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본 입찰에는 총 127개 업체가 참여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1단계 심사(10.30~11.4)를 시행한 결과, 총 88개 업체가 부적정공중수 초과 등(▲부적정공중수 6개 이상 초과 80, ▲무효 사유 2, ▲전체부적정 6)으로 탈락했으며 심사결과를 11월 5일 KR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한 바 있다.

1단계 심사에서 통과한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5개 부적정공중에 대한 공중별 세부내역에 대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2단계심사, 11.12)를 시행한 결과 각 공구별 최저가 1순위 업체들이 5개 부적정공중 모두 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을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구간(72.1km) 중 최천~덕하 4개 공구(26.6km)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2017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인 동해남부선 공사를 손조름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구 분	면 적	낙찰금액(억원)	낙찰업체	행정구역	
5공구	8,210km	1,029	동부건설(주)	부산(기장)	
부산 기장	6공구	4,140km	520	(주)한라	부산(기장)
울산 울주	7공구	6,150km	627	진흥기업(주)	울산(울주)
8공구	8,169km	1,102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울산(울주)	
계	26,669km	3,278		울산(울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위한 MOU 체결

- 공단, 부산시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관) 자산개발사업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올해 말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부산시 관내 동해남부선 우동~동부산관광단지 폐선구간(11.3k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상호 협력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1월 22일 부산시청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대상 부지에 대해 ▲공단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부산시는 인·허가에 적극 협조, ▲부산시에서 폐선부지 및 신선 고가하부 철도부지 내에 자전거길 등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단이 국유철도부지 활용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국유자산인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 공단과 지자체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부산시에서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우동~동부산관광단지, 11.3km)와 신선 고가하부 철도부지(부전~우동, 11.2km)를 활용하여 자전거길, 산책로, 전망대, 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부종한 시민 휴식공간이 대폭 확충되고 철도 주변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소음 진동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본부는 2017년까지 이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훗 해운대역을 해운대 관광특구 등 주변 입지들을 감안한 4개절 전천후 관광시설로 개발하고, 미포~홍송정(4.8km)구간은 해안 절경을 활용한 해양관광시설(레일바이크, 속삭, 운동 등)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민간재안공모로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 이익은 철도건설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잉여자산 매각으로 20억원 수익 창출

- 구미시 40년 숙원사업 해소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욱) 시설장비사수는 수익 창출과 유지비용 및 부채절감을 위해 잉여장비인 자갈화차 212대에 대한 매각공고를 11월 21일부터 7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당초 경부고속철도는 전 구간 자갈계도로 건설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자갈화차 322대를 구입하여 철도건설 사업에 운영하였으나 경부고속철도 2단계 동대구 부산 구간은 자갈계도 대신 첨단방법인 콘크리트계도로 건설함에 따라, 자갈화차의 운용률은 떨어져 화차의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2천만원씩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시설장비사수는 매년 발생하는 자갈화차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속철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차량 110대를 제외한 212대에 대해서는 매각을 결정했다.

사무스 관계자는 자갈화차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금액 약 20억원뿐 아니라 매년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 2000만원을 줄일 수 있어 공단 부채 절감과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부선 오태동지아차도 개통

- 구미시 40년 숙원사업 해소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구미시의 40년 숙원사업인 경부선 구미~익곡간 철도 하부를 횡단하는 오태동 지하차도 공사를 완공하고 11월 15일 개통했다.

본부는 1934년 경부선 복선 개통 당시 건설된 궤오태동 BOX가 협소하여(폭3.5m 높이3.5m)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89억원을 들여 4차선(18m) 폭으로 확장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하차도 개통으로 "그 동안 오태동 상입지구 이용, 학교 등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산업단지 물동량을 수송하는 차량통행이 원활해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 전

개방 후

전북대 토목공학과, 광주차량기지 견학

- 대학생 120여 명 고속철도건설 현장에서 보고 배우다!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11월 12일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및 재학생 120여 명을 초청하여 광주차량기지 및 장수고구기 등 호남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차량기지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 후 안전 체험장 및 차량검수고를 거쳐 장수고구기 시공현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이 실무에 적용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진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었다.

오송~광주승정(182.3km)을 잇는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오송~광주 최단 소요 시간이 159분에서 93분으로 66분이나 단축돼 교통체계와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지역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본부 한승우 기자)

